中, 룽먼석굴 반세기만의 대규모 보존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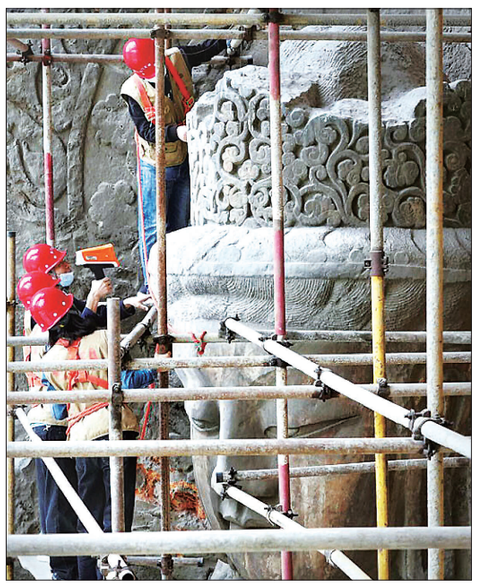
5세기 후반 400년 거쳐 조성
2000년, 유네스코 유산 지정
유리 안구 발견 등 이목 집중
최근 228일간 프로젝트 완료

박영빈 객원기자

중국 불교미술 걸작 중 하나로 불리는 룽먼석굴(龍門石窟)이 약 50년 만에 보존처리를 비롯한 연구조사 등 대규모 보호프로젝트를 마쳤다. 이번 보호프로젝트를 통해 불상 등에 대해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이 발견되는 등 다양한 성과들이 나왔다. 지난 7월 23일 중국의 '인민일보'는 룽먼석굴의 소식을 특별 보도했다.

룽먼석굴은 5세기 후반부터 400년 가까이 낙양교외에 조성된 불교석굴사원으로 현재 2345개의 불감(佛龕), 70개의 불탑, 11만 구의 불상이 전하고 있다. 특히 이중 가장 유명한 작품은 봉선사(奉先寺)의 노사나불(盧舍那佛)이다. 당나라 측천무후의 발원으로 조성된 불상으로 주존인 노사나불좌상은 높이 17.4m로 측천무후의 용모를 본 따 상호를 조성했다는 전설이 전한다. 현재 사찰은 폐사되어 사라졌으나 절벽에 조성된 불상들은 당나라 불교미술의 걸작으로 지난 2000년,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됐다.

이 노사나불좌상에 대해서는 지난 1971년 낙석방지와 누수방지 처리를 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6일부터는 첨단기술을 이용한 보존처리와 조사연구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룽먼석굴 연구소 주도하에 진행된 프로젝트는 실시 기간 동안 문화유물 보호개념을 혁신하고 과학적인 연구 작업을 전체적으로 수행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상하이대학, 산시성 문화유물보호연구소, 허난성 문화유물고고학연구소가 함께 참가했으며 이들이 구성한 과학연구팀은 현 노사나불상에 대하여 현황조사, 보존 상태 평가 및 새로운 문제점들에 대하여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한 고고학적 작업을 진행했다.


디지털 기술로 불상을 조사하는 연구원들.
사진출처=신화통신

연구팀은 X선 형광분광기, 초분광 영상분광기 등 첨단 검출 기술을 활용해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여러 문제점, 혹은 새로운 발견을 발표했다. 특히 주불인 노사나불좌상을 비롯해 협시 불상들의 표면에서 금과 은 원소가 검출됐으며, 그 외에 다양한 색상의 안료들이 남아 있는 것이 밝혀졌다. 또 협시인 보현보살상의 오른쪽 눈에서 유리로 만든 안구가 발견돼 학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룽먼석굴 연구소 측은 "불상의 표면에서 대량의 연백(鉛白)성분이 검출됐다. 납으로 만든 안료인 연백은 고대 회화에서 중요한 안료이자, 금박을 접착하는 기본재료로 사용됐다. 또 자연 풍화를 막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고대 불상 조성과 채색, 보존 방법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밝혔다. 또 "보현보살상의 오른쪽 눈에서 발견된 유리안구를 통해 이미 당나라, 혹은 그 이전부터 불상의 사실성을 위해 다양한 재료를 상감했음이 명확해졌다"면서 "보현보살 안구는 당나라 때 만들어진 그 상태 그대로 완벽하게 보존돼 있다"고 전했다.

연구소 측은 이 외에도 붕괴 위험이 있는 암반에 대한 보강과 누수 방지 처리를 진행했으며, 디지털 스캐닝 기술을 이용해 불상의 현황을 완벽하게 측량했다고 발표했다. 측량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장차 다른 불상이나 석굴들에도 동일한 기술을 적용해 보존처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룽먼석굴 연구소장 스자이천은 지난 21일 노사나불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2022년 7월 21일, 228일간의 시간 동안 봉선사 노사나불에 대한 전반적인 보호프로젝트를 완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소장은 3일 뒤 보존처리가 완료된 노사나불상을 공개하고, 15일간에 걸쳐 불상주변에 설치된 보호막과 비계를 철거해 일반 대중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네팔 주요 불교 관광지 'NO TIKTOK'

보우다나트 탑, 룸비니 성지 등 동참

네팔 유명 관광지에 '틱톡 금지' 표지판이 등장했다. 지난 7월 23일 인도 경제지 '포브스 인디아'는 네팔 관광지의 틱톡커 출입 및 틱톡 촬영금지 소식을 전했다.

최근 네팔 불교성지인 보우다나트 대탑과 룸비니 앞에 '틱톡 금지'라는 새로운 표지판이 등장했다. 이 표지판은 틱톡 영상 제작을 위해 유적지를 방문하는 틱톡커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틱톡'은 15초에서 1분 길이의 숏폼(Short-form) 비디오 형식의 영상을 제작 및 공유할 수 있는 중국의 글로벌 영상 플랫폼이다. 틱톡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들은 '틱토커'라고 칭한다. 그러나 최근 일부 틱토커들이 불교사원이나 다른 종교 성지에서 우스꽝스러운 포즈를 취하거나 춤을 춰 영상을 업로드 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부처님 탄생성지인 룸비니 사원을 관리하는 룸비니 개발신탁의 사누라지 샤캬(Sanuraj Shakya) 대변인은 "우리는 부처님이 탄생한 성스러운 장소에서 틱톡 영상 촬영을 금지한다. 많인 틱토커들이 영상촬영을 위해 크게 음악을 틀고 우스꽝스러운 포즈를 취하거나 춤을 춰 부처님 탄생지를 찾는 전 세계 불자들의 수행정진에 큰 폐를 끼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누라지 대변인은 또 "틱톡 금지 표지판은 매년 4대 성지를 방문하는 수천, 수만 명의 불자들의 신심어린 순례를 돕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며 다른 성지들의 동참도 촉구했다.


최근 틱톡 촬영을 금지한 보우다나트 대탑 전경.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

틱톡 금지 표지판은 카트만두의 세계문화유산인 보우다나트 대탑에도 세워졌다. 네팔 최대의 불교성지인 이 곳은 전 세계에서 방문한 불자들이 탑을 돌며 기도하거나 절을 올리는 등의 신행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틱톡 영상 촬영차 방문한 틱토커나 인플루언서들이 이 장소들에서 촬영을 강행하며 소란스럽게 만든 사건이 발생하면서 보우다나트 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대탑 주변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 또한 틱토커들에게 과도한 틱톡촬영 금지규칙을 준수하도록 십여 명의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주의를 주고 있다. 그러나 성지를 알리거나 순례를 격려하기 위한 촬영에 있어서는 촬영을 일부 허락하고 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中, 네덜란드 미술품 수집가에 불상 반환 명령

"구입 절차 입증 미약" 이유

중국 법원이 불법 국외반출로 추정되는 불상에 대해 중국으로 반환 명령을 내렸다. 지난 7월 21일 불교전문매체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과 중국의 '환구시보' 등은 중국 법원이 내린 반환 명령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

논란이 된 불상은 송나라 때의 승려 장공조사(章公祖師)의 등신불이다. 당초 건칠불로만 알려져 있던 불상은 지난 2015년 부다페스트 자연사 박물관의 조사로 내부에 실제 스님 유해가 복장돼 있는 것이 밝혀져 세계적인 화제를 끌었다. 이와 함께 이 불상이 도난품이라는 논란도 함께 일어났다.

불상 소유권을 주장하는 측은 푸젠성 산밍(三明)시 양춘(陽春)마을 주민들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불상은 마을 불당인 보조당에 봉안되어 있던 장공조사상으로 1995년 12월 도난됐고, 이듬해 해외로 유출됐다. 한편 현 소유주인 네덜란드의 미술수집가 오스카 반 오버레임은 "불상을 처음 본 것은 도난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1995년 중순이었고, 전 소유주는 94년에 홍콩에서 구입한 것이다. 나는 이것이 양춘마을의 장공조사상이 아니라고 확신한다"며 팽팽하게 맞섰다.


논란이 된 송(宋)대 장공조사(章公祖師)의 등신불.
사진출처=가디언

그러나 19일 중국 푸젠성 고등인민법원은 오버레임에게 "1996년에 구입한 불상을 중국으로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법원 측은 "오버레임이 주장하는 대로 1996년에 이 불상을 적법한 절차를 밟아 어떻게, 어디서 구입했는지 등을 입증할 자료가 미약하다"며 명령의 근거를 밝혔다. 재판을 방청한 양춘마을의 주민 린카이안은 "등신불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고 우리의 정신적 의지처였다. 가능한 한 빨리 등신불이 우리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네덜란드에서 중국 법원의 반환 판결을 이행할지는 미지수다. 재판을 맡은 징시로펌의 쑹징 변호사는 "중국과 네덜란드가 지금까지 사법재판에 대한 합의를 상호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 이행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며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달라이라마 라다크 방문…종교간 화합 당부

코로나19 후 첫 원거리 방문
불자들에게 '지행합일' 강조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인 달라이라마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원거리 방문을 나섰다. 인도 북부의 라다크 불교협회의 요청에 따라 라다크를 방문한 달라이라마는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의 사원들을 방문하고 종교간의 화합을 당부했다. 지난 7월 24일 '더 티베트 넷'은 달라이라마의 행보에 대해 보도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원거리 방문과 외부활동을 연기했던 달라이라마가 팬데믹 사태 이후 처음으로 외부일정을 가졌다. 지난 7월 15일, 인도 북부 라다크에 도착한 달라이라마는 라다크 불교협회가 마련한 숙소에서 일주일 가량 휴식을 취하고 첫 공식일정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라다크 불교협회 회장인 툽텐 체왕과 라다크 불교계를 이끄는 틱세 린포체의 공동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라다크 불교협회 측은 "라다크의 많은 사람들은 달라이라마께 깊은 신심을 가지고 있다. 대중법문이나 특정 사찰과 기관 방문과 같은 행사가 없더라도 단지 달라이라마께서 라다크에 계신 것만으로도 큰 행복을 느낀다"며 달라이라마의 방문을 환영했다.


이슬람성원에서 기도를 올리는 달라이라마.
사진출처=더 티베트 넷

달라이라마는 24일 오전 라다크의 수도 레의 중심부에 세워진 라다크 불교협회의 축라캉 사원을 방문해 간단한 기도를 봉행하고, 바깥 광장에 모인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달라이라마는 이날 모인 불자들에게 "이제 곧 다시 이렇게 모일 수 있을 것이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은 반드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또 이것을 이해하며 실천해야한다"고 지행합일을 강조했다.

이어서 달라이라마는 축라캉 사원에서 인근의 이슬람교 수니파의 자마성원을 방문했다. 달라이라마는 이 자리에서 종교 간의 화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라다크의 모습을 꼽으며 자신을 환영해준 무슬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후 다시금 부근에 위치한 시아파의 이슬람 성원을 방문했다. 달라이라마를 맞이한 라다크 시아파의 지도자 이맘 바르가르는 "2006년 이 성원이 처음 개원했을 때 달라이라마께서 방문하여 축복해 주었다"고 회상했다. 달라이라마는 인도에서도 특히 라다크는 종교간의 대화와 조화를 뚜렷하게 보이는 장소라고 말하며 종교를 떠나 동일한 인간으로서 서로를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달라이라마는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개신교 중 가장 오래된 교파인 모라비아 형제회가 레에 건립한 교회를 방문했다. 이곳에서 달라이라마는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선 것과 세계 발전에 기여한 점에 대해 존경을 표했다. 세 종교의 사원을 방문한 달라이라마는 각 종교에 따른 예배에 참석했으며 모든 자리에서 종교 간의 화합과 대화를 강조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